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Amish)마을

신 동 호 I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위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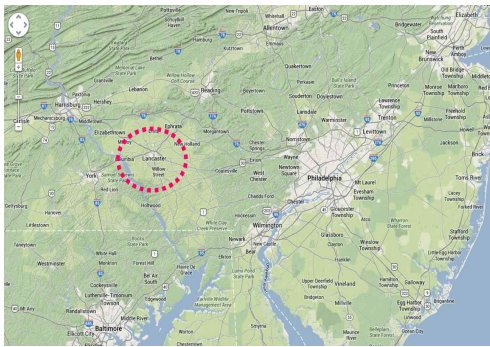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충남경제의 고속성장은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방식에 힘입은 바 컸으며, 민선 4기까지의 도정 역시 이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은 양적측면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생적 발전방식이 지역에 가져오는 태생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이를 테면 외부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성 심화나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본질적 목적 훼손 및 잠재역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도정은 지역발전의 목표가 단순한 생산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만이 아닌 환경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다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이른바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역내부의 자원동원능력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도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구축’ 연구는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동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나 이후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美 델라웨어주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간간히 들리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인근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 지역의 아미쉬(amish) 마을이었다. 이 아미쉬 마을은 내발적 발전을 구분하는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꼭 들어맞는 사례로 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동 발전방식의 핵심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 및 전통기술을 통해 다양한 생업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이 꾀하여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발적 발전의 관점에서 랭카스터 지역의 아미쉬 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아미쉬(Amish) 공동체의 삶

1737년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주로 살던 아미쉬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美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lancaster)지역으로 처음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아이오와주를 포함한 20여개 州에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아미쉬들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정에서 생겨난 재세례파(anabaptist)로 매우 엄격한 종교관행을 지켜오는 탓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생활계율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데 이를 테면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와 같은 현대문명의 편의를 가능한 한 사용치 않으며 독특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아미쉬들은 단추나 지퍼보다는 훅과 아이어가 달린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의 옷만을 입어 ‘hook and eyers’ 혹은 ‘plain people’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는 종교가 공동체의 생활양식 전반을 지배하는 것으로 경제활동 역시 다르지 않다.

1) 랭카스터(lancaster)지역은 美 동부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약 65마일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아미쉬 이외 일반시민들도 거주하고 있어 월마트나 아울렛 등의 상업시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도농 복합형 지역이다.

대부분의 아미쉬들은 노동집약적인 농·축산업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을 농기계가 아닌 말(馬)과 사람의 손으로 한다.²⁾ 물론 자급자족하고 남은 농·축산물들은 인근 도시로 유통되거나 자신들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 부스를 차려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데 맛과 질이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일부 아미쉬들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퀼트와 공예품, 그리고 가구 등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퀼트제품



공예품



축산농가



파머스 마켓

그리고 아미쉬 가정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7~8세가 되면 농사일이나 장사 등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한다. 실제로 아미쉬 마을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린 아미쉬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관광객들을 조랑말 마차에 태워 마을을 투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어는 아미쉬 관광의 일부로 아미쉬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²⁾ 농기구는 대장간에서 손으로 제작하며 농사와 교통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이용하나 승용차나 화물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체내에서 지정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 문명의 이기(利器)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양한 농촌체험(farm stay)프로그램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물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과 연계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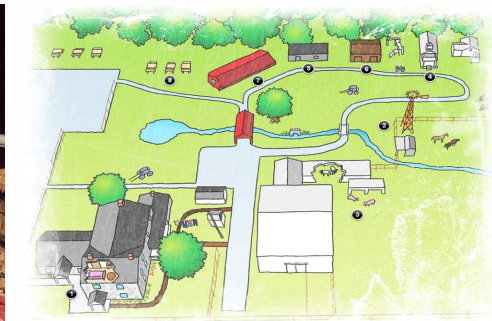
마차투어



아미쉬 뮤지엄



팜스테이



아미쉬 빌리지 투어맵

아미쉬 공동체 내 경제적 거래 관점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바로 머드세일(mud sales)이라 불리 우는 시장거래이다. 질척한 땅바닥 위에서 場이 선다하여 머드세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드세일(yard sale)과 유사하나 규모나 거래 품목이 훨씬 크고 다양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5일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나 대부분의 거래가 경매(au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상당한 중고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추측컨데 과거에는 주로 아미쉬들간에 다양한 생필잡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현재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³⁾

3) 2014년 랭카스터 지역의 머드세일(mud sale)은 총 18회가 열릴 예정이며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있다. 최근에는 지역민간소방회사(local fire company)에서 場이 선다.

필자가 가본 머드세일場에서는 퀴트제품, 골동품, 잡화, 마차, 가구, 화훼 그리고 다양한 농기구와 수공예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었다. 경매는 아미쉬들이 주관하는데 모든 경매물건에는 숫자로 적힌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각 물건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인이 경매소에 들러 대금을 지불하면 해당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場이 파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경매소 내에는 'items must be paid before removed from sale grounds'라는 문구가 공지되어 있다.



머드세일 전경



경매과정



경매물건



경매소 전경

👉 **아미쉬들이 마차나 체인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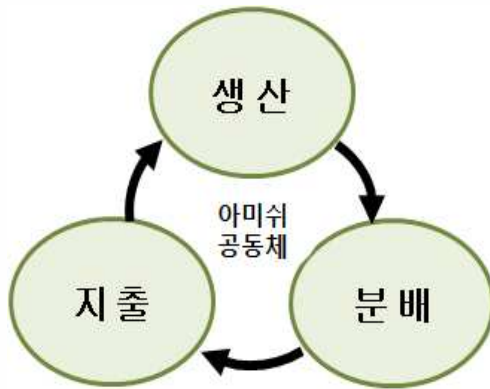


아미쉬들은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미쉬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랭카스터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마차나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전거에 체인이 없어 빨리 그리고 멀리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리막길을 제외한 평지에서는 발로 지면을 지쳐 동력을 얻고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올라가는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체인 달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멀리 갈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가 용이해지고 그럴수록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어 아미쉬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진한 발상이 통할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을 듯 싶다. 여담이지만 아미쉬들은 성인이 될 시점에 공동체에 ‘남을지 떠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데 설령 떠났다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이가 90% 정도는 된다 하니 어려서부터의 생활습관은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아미쉬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한 책자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차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한 시간을 걸려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를 갖게 된다면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헛되이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딱 한번만 시내에 다녀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마차를 자동차로 바꾸어보면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시내에 나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더 자주 다니게 되고 아주 사소한 일로도 시내에 나가게 된다. 그리고 곧 집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50마일을 운전하고 가는 것이 예전에 5마일을 가는 것만큼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해버리게 된다.

출처: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 들녘, pp86-87.

3. 끝내며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미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는 분배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거의 없이 지출로 이어지며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 back)되는 일련의 과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양태로 보아 경제적 관점에서 아미쉬 공동체를 자급자족형태의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아미쉬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축산농가를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수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방형 경제(open econom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내 내부자원과 전통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감소하고 금욕적인 아미쉬만의 생활양식 탓에 불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부수요에 대응한 생산활동은 영위하되 외부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 자연스레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아미쉬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표상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500여 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바꾸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